

2024년 3월 29일 설교자 회의

본문 : 시편8편 1-9절

제목 : 여호와 우리 주여

대지 : 1.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 사람이 무엇이기에

1

시편 8편은 시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멜로디를 붙여 찬양으로도 부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은 시편을 형식으로 나눌 때 찬양시로 구분되며,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앳딜은 존귀한, 광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의 아름다운 창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경이로움, 흑암에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 땅이 생기며 그 속에 만들어지는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장엄한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를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거대한 자연을 바라볼 때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거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거대한 자연을 뛰어 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작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함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낮아지셨다가 승리하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

참고 : 김정우 시편 강해, BKC주석, 박윤선 시편주석

본문 : 누가복음 6장 1-11절

제목 :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지 : 1. 사람들이 만든 규례
2. 안식일의 주인

1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6장 11절에서는 총 여섯 번의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이 나옵니다. 그 중 오늘 본문인 6장 1-11절은 마지막 단락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할레와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해석하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삭을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규례를 어기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은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후대의 유대교가 추가로 만든 규례였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절의 다윗이 성막에서 진설병을 먹어 규례를 어겼지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배고픈 상황에서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배고픔과 같은 필요에 대해 규례가 유연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심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율법이 판단할 것이 아닌 예수님의 권위가 율법을 해석해야 함을 말합니다.

2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함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해석하십니다. 다른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지 감시하며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서는 안식일에 응급처치만 가능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손 마른 장애가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생명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안식일에 치료를 하면 안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건을 지키기 위해 세운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규칙에 얽매어 버립니다. 어느순간 경건을 위했던 것은 잊고 규칙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고 지켜왔지만, 어느새 규례를 지키는 행위에만 얽매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온세상의 주인을 눈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함이 아닌 나의 의를 높이고 있다면 돌이킬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문장 : 율법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NITNC누가복음

본문 : 누가복음 10장 25-37절
 제목 :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대지 : 1. 율법교사의 시험
 2. 긍휼한 이웃

1

본문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은 정말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에크페라이조'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악의적으로 성경을 잘못 인용했을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누가의 기록처럼 율법교사의 질문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수준을 낮추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한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대답하게 되었고, 자신의 의도 대로 흘러가지 않자 다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2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앞 두사람은 종교적 지도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무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시체로 여겼다면 버려진 시체를 매장해야할 제사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확실한 사실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온 사마리아인은 이들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부정하고 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줍니다.

앞선 두 여행자와 세 번째 여행자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종교적 역할을 맡은 높은 신분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두 사람에게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신분을 가진 존경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 좋은 교육, 부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이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참고 : 누가복음(강대훈), NICNT누가복음

본문 : 누가복음 19장 1-10절

제목 :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주님

대지 : 1. 가로막힘
2. 부르심

1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린 이 여리고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친히 방문하신 곳이었습니다. 2절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ιδου'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것은 주의를 기울이며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를 소개할 때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다 라고 조금더 삭개오라는 인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압제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와 결탁하여 잘먹고 잘살던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반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뵈기 위해 나무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뵈고 싶어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고, **로마와 결탁하여 배를 불리는 민족 반역자라는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에 가로막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뵈고자하는 열망으로 나무를 오릅니다.

2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만난적이 없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오늘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머무는 것은 유대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을 것이며,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갑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그에 따른 회개와 돌이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부자청년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3장 12-13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온 세리들을 통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에 모든 것 내려 놓고 예수님을 뵈고자 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입니다.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시대가 세워 놓은 기준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 대한 세상에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불안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잃어버린 한명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참고 : nitnc누가복음, 강대훈 누가복음